

<要 約>

1. 美國 中間選舉 結果의 背景

- 지난 8일 치루어진 美國 中間選舉에서 共和黨이 上·下 兩院과 州지사 선거에서 壓勝을 거둠.
- 共和黨 勝利의 原因으로는 여러가지가 複合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執權黨의 전통적인 중간선거 不振, 既存 정치체제에 대한 美國民의 냉소적 태도, 클린턴 개인에 대한 不信感, 클린턴 행정부의 國內政策에 있어서의 실패, 南部지방 保守勢力의 공화당 轉向 등을 들 수 있음.

2. 選舉 結果의 含意

- 美國民의 保守化 傾向을 지적하는 分析이 많으나, 그보다는 既存 保守勢力 (특히 南部地方)의 共和黨 轉向이 두드러짐.
- 美國民의 既存 體制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으로 兩黨 體制의 崩壞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
- 의회는 공화당, 백악관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分割 政府' 현상의 발생으로 議會-大統領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國政 運營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번 選舉에서의 敗北로 클린턴의 再選 可能性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컴백 키드' (Comeback Kid)로서의 그의 끈기와 집념을 살린다면 2년 후의 版圖는 예측하기 어려움.

3. 美國의 對外政策 變化 可能性과 波及效果

- 美國 外交政策의 基本 方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對한반도 정책에도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對北韓 政策의 強硬化 가능성은 있으나 북한의 開放을 유도한다는 기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임.
 - 安保問題에 관한한 韓美간의 共助體制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임.
- 美國의 對外通商政策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對韓 通商壓力은 계속될 것이나, 수퍼 301조의 復活 可能性은 희박함.
 - APEC 등을 통한 아시아 중심의 對外經濟政策은 지속될 것임.
- UR 協定은 共和黨의 수정 요구에 의해 비준이 내년으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러한 지연이 가져올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共和黨도 年內 批准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

1. 美國 中間選舉 結果의 背景

- 지난 8일 치루어진 美國 中間選舉에서 共和黨이 上·下 兩院과 州지사 선거에서 壓勝을 거둠.
- 共和黨 勝利의 原因으로는 여러가지가 複合的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執權黨의 전통적인 中間선거 不振, 既存 정치체제에 대한 美國民의 냉소적 태도, 클린턴 개인에 대한 不信感, 클린턴 행정부의 國內政策에 있어서의 실패, 南部지방 保守勢力의 공화당 轉向 등을 들 수 있음.

○ 選舉 結果

- 지난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
- 전체 100席중 35席을 새로 선출한 상원의 경우 공화당은 22개 주에서 승리, 기존 의석 31席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53席을 차지함으로써, 1986년 이후 8년만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
- 하원 선거에서도 전체 435席중 공화당은 기존의 178席보다 무려 52席이 증가한 230席을 차지함으로써 1954년 이후 40년만에 다수당에 복귀함.
- 36개주에서 치루어진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25개주에서 승리, 총 31개의 주정부를 장악, 24년만에 주지사수에서 민주당을 앞서게 됨.

<중간선거에 따른 美議會 兩院과 州지사의 政黨別 分布와 增減>

구 분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전체
上院	새 의석수	53	47	0	100
	기존 의석수	44	56	0	
	증감	+9	-9	0	
下院	새 의석수	230	204	1	435
	기존 의석수	178	256	1	
	증감	+52	-52	0	
州지사	새 주지사수	31	18	1	50
	기존 주지사수	20	29	1	
	증감	+11	-11	0	

○ 原因 分析

- 이같은 공화당의 승리에는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였음.
-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執權黨의 전통적인 中間選舉 不振을 들 수 있음.
 - 대통령 선거에서 막 승리한 대통령은 초창기에는 소위 '허니문 효과' (honeymoon effect)에 의해 언론과 기존 정치인들에 의해 좋은 점만 부각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인기가 하락되어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이 그리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거의 公式化되었음.
 - 클린턴의 경우는, 당선 당시 젊고 상쾌했던 이미지가 집권 초기부터 줄어 발생하였던 갖가지 스캔들에 의해 퇴색하여 중간선거 훨씬 전부터 그 인기가 이미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음.
- 다른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기성정치인 등 미국정치체제 일반에 대한 美國國民의 냉소적 태도를 들 수 있음.
 - 이번 선거에서 많은 현직의원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한 경우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로서 이는 민주당의 패배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위싱턴 주에서 출마했던 탐 폴리 (Tom Foley) 민주당 下院議長을 비롯한 거물들의 패배는 既存 정치인에 대한 美國國民의 거부감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음.
 - 일반적으로, 현 정치체제와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美國國民의 막연한 불안과 불만은 클린턴 行政府와 議會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否定的 태도로 이어지게 되었음.
- 클린턴 개인에 대한 불신감도 크게 작용하였음.
 - 클린턴의 사생활을 둘러싼 여러 스캔들, 그의 신중치 못하고 경박한 행동 등은 美國國民의 그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음.
 - 공화당은 美國國民의 이러한 반클린턴 정서를 십분 활용, 모든 선거에서 클린턴을 이슈로 삼는 전략을 채택함.
- 국내 문제에서 클린턴 行政府의 실패는 커다란 타격으로 작용함.
 - 비록 경제 희생에는 성공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희생을 위해 클린턴이 펼쳐온 企業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였음.
 - 執權 初期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의료보험 개혁안 등이 議會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였음.

- 國內 問題를 주요 쟁점으로 당선되었던 클린턴이 국내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그와 민주당에게 커다란 타격이 되었음.
- 최근 외교 문제에서의 성공이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음.
- 클린턴 行政府는 집권 초기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최근 아이티 사태 해결, 북한 핵문제 타결, 중동 평화정착에의 기여 등 상당한 외교적 업적을 거두었음.
- 그러나 전통적으로 외교 문제는 미국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특히 비교적 관심이 적은 中間選舉에서는 더더욱 그러함.
- 南部지방의 保守 세력들이 공화당으로 변신하였음.
- 南部 지방은 워낙에 保守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 전통에 의해 계속 민주당이 우세를 보여 왔음.
- 그러나 클린턴이 군대내 동성연애자 문제나 인종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보인 진보적 태도에 불만을 가진 많은 南部人들이 과거의 벽을 깨고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음.
- 그 결과 南部지방에서 공화당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졌음.

2. 選舉 結果의 含意

- 美國民의 保守化 傾向을 지적하는 分析이 많으나, 그보다는 既存 保守 勢力(특히 南部地方)의 共和黨 轉向이 두드러짐.
- 美國民의 既存 體制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으로 兩黨 體制의 崩壞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
- 分割 政府 현상의 발생으로 議會-大統領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國政 運營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번 選舉에서의 敗北로 클린턴의 再選 可能性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컴백 키드로서의 그의 끈기와 집념을 살린다면 2년 후의 版圖는 예측하기 어려움.

○ 美國民의 保守化 傾向?

- 이번 선거로 인해 美國民이 保守化되었다는 분석이 많으나, 꼭 그렇지 않음.
- 그 사례로서, 가장 保守的 입장을 취했던 올리버 노스(버지니아 상원)와 부시 前대통령의 아들 켈 부시(플로리다 주지사)가 모두 패배하였음.

- 반면, 進步的 자유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케네디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주)은 초반의 불리를 딛고 승리함.
- 美國國民의 保守化보다는, 앞서 언급한 남부지방 保守 세력의 공화당 전향이 두드러짐.
- 따라서 특히 사회 문제에 있어서 클린턴 정부는 앞으로 보다 중도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 兩黨體制의 崩壞 可能性

-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현체제, 특히 兩黨 構圖에 대한 많은 美國國民의 불만이었음.
- 공화당 뉴욕 市長이 민주당 뉴욕 주지사 후보를 지원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각기 상당한 내부 분열을 보였음.
-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美國國民의 약 1/3이 민주, 공화 어느 쪽과도 일체감을 가지지 않는 독립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 이를 계기로 제3당의 출현에 따른 기존의 민주, 공화 兩黨體制의 崩壞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3당의 출현에 대해 美國國民의 53%가 긍정적, 43%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1992년 비슷한 질문에 대해 44%가 긍정적, 44%가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현재의 양당 체제는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유산으로서,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3당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함.
- 현재 美國國民의 불만이 무엇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해소시켜 줄 대안을 가진 제3당이 곧 출현하기는 어려울 듯 함.
- 미국 議會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小選舉區制와 單純多數制는 제3당의 부상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음.

○ 分割 政府에 따른 向後 國政 運營의 어려움

- 양원이 공화당의 손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2년만에 다시 '分割 政府' (divided government) 현상, 즉 백악관과 議會가 각기 다른 당에 의해 지배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議會와 대통령과의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음.

- 실제로 클린턴 行政府는 민주당이 兩院을 장악하고 있던 지난 2년에도 의료보험개혁안의 통과에 실패하는 등 議會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美議會는 多數黨이 의장직을 포함한 각 분야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독식하기 때문에, 모든 법안에 있어서 行政府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클린턴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리 심한 갈등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임.
- 미국은 과거 오랜 기간의 분할 정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議會와 大統領 양측 모두 상호간 협조적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클린턴 대통령도 議會와 協調的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상보다는 심한 갈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년보다는 갈등적이고 대결적인 議會-行政府 관계가 성립될 것임.

○ 클린턴의 再選 可能性

- 이번 선거는 클린턴의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번 민주당의 참패는 클린턴의 재선 희망을 어둡게 함.
-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클린턴 개인의 非인기가 대부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여,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클린턴의 선거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음.
- 또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이른바 "Big States"의 주지사를 공화당이 모두 차지함으로써, 클린턴의 재선은 그만큼 어려워 지게 되었음.
- 하지만 유권자들의 기억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향후 2년간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클린턴이 재선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그 예로 1982년 中間選舉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도 매우 떨어졌으나, 그 후 경제의 급속한 회복 등에 힘입어 레이건은 1984년 먼데일 민주당 후보와 상당한 차이를 벌이며 재선되었음.
- 지난 1992년 선거에서 클린턴이 보여준 끈기와 집념으로 미루어 보아, '컴백 키드' (Comeback Kid)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가 다시 한번 美國國民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3. 美國의 對外政策 變化 可能性과 波及效果

- 美國 外交政策의 基本 方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對한반도 정책에도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對北韓 政策의 強硬化 가능성은 있으나 북한의 開放을 유도한다는 기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임.
 - 安保問題에 관한한 韓美간의 共助體制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임.
- 美國의 對外通商政策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對韓 通商壓力은 계속될 것이나, 수퍼 301조의 復活 可能性은 희박함.
 - APEC 등을 통한 아시아 중심의 對外經濟政策은 지속될 것임.
- UR 協定은 共和黨의 수정 요구에 의해 비준이 내년으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러한 지연이 가져올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共和黨도 年內 批准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

○ 美國의 對한반도 政策 變化 可能性

- 미국 외교정책의 基本 方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
 - 脫冷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 공화 모두가 경제 위주의 實利的 외교정책을 추구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 공화당의 兩院 장악으로 외교, 군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체될 것이나, 미국의 외교정책은 超黨의 지지에 바탕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對北韓 政策 強硬化의 가능성은 있으나, 협상을 통해 북한의 開放을 유도한다는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임.
 - 공화당 의원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北美고위급 회담의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재협상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앞으로 경수로 등 미국의 對北 支援에 있어 議會의 반대가 예상됨.
 - 따라서 남북 경협을 진전 등 향후 南北關係의 改善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우리 政府로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공화, 민주 양쪽에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
- 한국에 대한 安保公約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최근 제기되었던 駐韓美軍조기철수론은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美國 優先主義'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해 올 가능성은 있음.

- 안보 문제에 관한한 韓美간의 공조 체제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임.

○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變化 可能性

- 미국의 對韓 통상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공격적 통상정책은 민주, 공화 兩黨의 지지를 받아 왔던 것으로, 자동차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금융 시장 개방 등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수퍼 301조의 부활입법 문제는 그동안 공화당이 계속 반대해 왔던 것이라, 그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 졌음.
- 미국의 APEC 강조 등을 통한 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클린턴 行政府가 추진해 왔던 아시아 중심의 경제정책은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미국 국내정치 판도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APEC 등을 통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임.

○ UR 協定 批准案 처리 展望

- UR 협정의 年內 批准 日程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현재 美議會는 11월 29일 下院 인준을 거쳐 12월 1일 上院 통과를 예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공화당내에는 UR 협정과 노동, 환경 문제와의 연계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 비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럴 경우 UR 협정의 비준은 내년초로 미루어지고, 이에 따라 WTO 체제의 출범도 내년 7월로 늦추어지게 될 것임.
- 批准案 처리의 지연이 가져올 엄청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美議會는 예정대로 年內에 비준을 끝낼 가능성이 높음.
 - 이미 클린턴 대통령은 超黨的 견지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공화당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公言하였음.
 - 새로운 議會는 내년초에 구성되므로, UR 협정 비준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舊議會에 의해 처리될 것임.
 - 기본적으로 自由貿易主義를 신봉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批准案 처리 지연이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年內 비준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